제16회 평의원회 회의록

□ 개 요

○ **일시 및 장소** : 2023.10.04.(수) 15:30~17:30 / 행정본관(E14) 제1회의실

○ **참석자** : 재적 평의원 11인 중 11인 참석

- 신하용(의장), 이창준(부의장), Mohammed Haruna Hamza, 고정식, 김소영, 김유승, 김진우, 박성동, 유승화, 이동민, 이희승

※ 대리인 : 예산팀장 김돌비(기획처장 代)

※ 배석자 : 학술문화원장 김민수, 교무팀장 정자호, 정보전산팀장 이종근, 중앙분석센터 하영훈

□ 주요 논의결과

○ **[제1호] 전기(제15회) 회의록 보고**

-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.

○ **[제2호]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보고**

-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 김민수 학술문화원장의 설명이 있었음.
- 동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·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.

1. (Q) **현 시스템에서는 학위가 두 개 이상인 학생의 데이터 연동이 어려웠는데,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?**
   (A)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학번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관리될 예정이며, 학위가 두 개 이상인 학생의 데이터 연동 등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.
2. (Q) **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버전 모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지?**
   (A)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기본으로 설계되고 있고, 기본 기능들은 웹사이트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.
3. (S) **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시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,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·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.**

○ [제3호] 정년후교수 제도 현황 보고

- 정년후교수 제도 현황에 대해 정자호 교무팀장의 설명이 있었음.
- 동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·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.

1. (Q) **정년후교수는 초빙교수로서 3년을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신규 박사과정(4년 기준)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지?**

   (A) 정년후교수 제도는 현재 우수한 교원들이 61세 이후 학생 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고 퇴직 이후에도 교육·연구 등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.

   이에, 정년 이후에는 신규 학생을 배정받기보다는 기존 학생에 대한 지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측면이 강하고, 신규 배정이 되는 경우에는 초세대협업연구실 등을 통해 전임직 교원과 공동 지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
2. (Q) **정년후교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?**

   (A) 정년후교수는 직급 명칭이 아닌 비전임 초빙교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며, 해당 명칭은 「정년보장교원 임용규정」상의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.

   또한, 정년후교수 임명과 임용의 시기가 상이한 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.

3. (Q) **정년후교수는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?**

   (A) 당초 정년후교수는 70세까지라는 기준이 있었으나, 연령보다는 수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음.

○ [제4호] 중앙분석센터 2관 개관에 따른 운영계획 보고

- 중앙분석센터 2관 개관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 하영훈 중앙분석센터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음.
- 동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·응답 및 의견 등이 있었음.

1. (Q) **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운영 상 문제는 없는지?**

   (A) KARA Academy에서 학생의 장비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율 사용이 가능한 학생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.

   또한, 학생 교육을 전담하는 연구원을 배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계획임.

2. (S) **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분석센터와 실험동물센터 등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Staff Scientist에 대해서는 재교육, 합리적인 승진시스템 등을 통해 역량개발 및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**